

# “하느님이 너 때리래”...뿔난 신부님에 반한 안방

분노조절장애 가진 사제에 호기심 반전 캐릭터 통쾌함...시청률 15%대 '손...' '프리스트'는 오컬트로 화제돼



안방극장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사제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드라마 속 인기 캐릭터로 자리 잡았다. 사진은 최근 시청률 16%를 넘기며 화제를 모은 SBS 드라마 '열혈사제'의 한 장면.

안방극장에 '사제' 열풍이 불고 있다. 최근 가톨릭 신부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드라마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시청률 15%(닐슨코리아)대를 넘어선 SBS 금토 드라마 '열혈사제'를 비롯해 케이블채널 OCN '손 더 게스트'와 '프리스트' 등이 다양한 신부들의 모습을 오컬트부터 액션까지 다채로운 형식으로 그리고 있다. 저마다 다른 소재와 캐릭터로 시청자의 시선을 모으고 있어 신선하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15일부터 방송 중인 '열혈사제'의 주인공은 불의를 보면 말보다 손이 먼저 나오는 김해일 신부(김남길)다. 김해일은 성당이 있는 땅을 노린 끝에 자신에게는 아버지와의 같았던 이영준 신부(정동환)를 죽게 한 권력층의 음모를 파헤친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그의 캐릭터. 분노조절 장애를 지닌 그는 미사를 집전하다 빵을 먹는 신도에게 욕박지르고, "하느님이 너 때리래"라며 건달의 얼굴에 주먹을 내지른다. 이전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그려진 사제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다. 그만큼 반전의 캐릭터가 통쾌함과 코믹함을 선사한다.

사제의 기존 이미지를 깨며 '열혈사제'는 시청자의 호평을 끌어내고 있다. SBS

의 첫 금토 드라마임에도 15%를 웃도는 시청률을 기록 중이다. "기존 사제의 모습과는 달라 시청자에게는 낯설 수 있다"는 제작진의 당초 우려와는 달리 독특하고 신선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1월 종영한 '손 더 게스트'도 사제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인기를 모았다. 구마사제 김재욱이 영매 김동욱, 형사 정은채와 악령에 맞서

싸우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는 '한국형 오컬트'라는 극찬 속에 화제몰이를 했다. 1월 막을 내린 OCN '프리스트'도 구마사제 연우진의 이야기를 다뤄 시선을 모았다.

드라마 속 가톨릭 신부는 신자가 아닌 일반 시청자에게는 다소 낯설게 보일 수 있는 직업이다. 영화와 달리 드라마로는 아직 많이 다뤄지지 않은 탓이다. 최근에

서야 관련 드라마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 역시 자칫 시청자 피로감을 자아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그만큼 직업적 세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오히려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시선이 많다. '열혈사제' 등이 모은 인기가 그 방증인 셈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해시태그 킷



## 명품백에도 수지 이름이?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완벽한 미모를 자랑했다. 멋스러운 코트와 가방으로 우아한 분위기를 한껏 강조했다. 가방 끈에 새겨진 수지의 영문 이니셜도 눈에 띈다. 고급스러운 매력도 잠시 특유의 장난기를 드러내며 팬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팬들은 "수지는 오늘도 예쁨" "귀엽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타자 #수지 #내어머님이누구나? #장난기폭발

## (tvN) '스페인 하숙' 무대는 산티아고 순례길 여행자 대상 숙소 운영

배우 차승원과 유해진, 배정남이 출연하는 '스페인 하숙'의 열기가 공개됐다.



현지 지역신문 '디아리오 데 레온'에 공개된 '스페인 하숙'.

케이블채널 tvN '스페인 하숙'의 3월 15일 첫 방송을 앞두고 차승원, 유해진, 배정남이 현지 스페인 비아프란카에서 한창 촬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신문과 방송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다.

최근 '스페인 하숙'의 촬영 풍경을 현지 지역신문인 '디아리오 데 레온'과 방송사 '안테나3' 등이 자세히 보도했다. 한국국립대학교류진홍원의 정누리 스페인 통신원에 따르면 현지 언론들은 '스페인 하숙'에 출연 중인 차승원과 유해진, 배정남이 스페인 북서부 레온시의 작은 마을 비아프란카에서 식재료를 구입하는 등 다양한 모습을 소개했다.

비아프란카는 산티아고 순례길에 자리잡은 마을로, 세 사람이 길에 나선 도보 여행자들이 잠시 머무는 알베르케(숙소)를 운영하며 프로그램을 촬영 중이다. 언론들은 "한국의 유명 배우들이 이 세 사람이 여행자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현지 정육점과 슈퍼마켓 등을 찾아 식재료를 구매하는 모습, 30여명의 스태프가 촬영을 위해 주민들과 협의하는 풍경 등을 전했다. 또 드론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촬영에 나선 한국 제작진이 펼쳐내는 광경을 지켜보며 "신기하고 재미있다"고 말하는 현지 주민들의 표정과 반응도 담았다.

언론들은 연출자 나영석 PD와 배우 윤여정, 이서진, 정유미 등이 '윤식당2'를 스페인 남부 가라치코에서 운영한 것을 가리키며 "TV 방송을 녹화해 한국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었다"면서 '스페인 하숙'이 단일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배정남은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스페인에서 함께 촬영에 나선 자신과 함께 차승원, 유해진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 재미 더하는 '열혈사제' 감초 3인방

김원해 갱스터, 이문식 사이비교주 외국인 노동자 역 안창환 몰입도 UP

연기자 김원해와 이문식 그리고 안창환이 '열혈사제'의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주연 김남길, 이하니, 김성균 못지않은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끊임없이 웃음을 자아낸다. 김원해와 이문식은 '이름값' 그대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안창환은 새로운 얼굴의 발견이라는 평가 속에 향후 행보를 기대하게 한다.

김원해는 '블라디미르 고자예프'라는 이름의 갱스터 역으로 외모부터 시선을 붙들고 있다. 스포키 메이크업보다 더 짙은 눈

화장과 펌 헤어스타일에 귀걸이를 착용해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를 뿜어낸다. 퍼 소재의 코트를 입어 캐릭터를 강화했다. 이를 통해 코믹함을 더하며 재능을 과시하고 있다.

이문식은 등장하자마자 시청자의 웃음을 터뜨렸다. '올 백' 헤어스타일의 사이비 교주로 완벽 변신했다. 의미심장한 눈빛과 절제 있는 손동작으로 캐릭터를 소화하고 있다. 능청스러운 '전매특허'의 연기로 코믹함의 강도를 더욱 강화하며 시청자의 시선을 모으는 중이다.

안창환은 예상치 못한 '기습 공격'을 펼친다. 이주노동자 역을 맡아 실제로 외국인으로 착각하게 할 정도의 분장과 영성한 한국어 대사로 캐릭터의 사실감을 뒷받침



'열혈사제'의 김원해와 이문식, 안창환(왼쪽부터).

하고 있다. 여기에 비속어만큼은 매우 정확한 발음으로 맛깔스럽게 표현해 코믹함을 돋보이게 했다.

방송 이후 안창환은 자신의 과거 이력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2017년 tvN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재소자였던 그는 주인공 박해수에게 폭력을 가하는 장면으로 시청자에게 무서운 인상을 심어준 바 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 10억짜리 '항거' vs 100억짜리 '엄복동'...누가 더 뜨거울까

(제작비)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그 시대와 실존인물을 다룬 두 편의 영화가 27일 개봉한다. 고아성 주연의 '항거:유관순 이야기'와 가수 비가 나서서 '자전차왕 엄복동'이다.

항일의 메시지를 담은 두 영화는 역사적인 사실을 뼈대 삼아 실존인물과 그에 얽힌 사건을 통해 100년 전 아픔을 펼친다. 시대적 배경과 작품의 지향은 비슷하지만 극을 완성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

'항거'(감독 조민호·제작 디씨지플러)는 비극의 시대에도 희망을 놓지 않은 여성들의 연대를 담담하고 묵직하게 풀어낸다. 반면 '자전차왕 엄복동'(감독 김유성·제작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은 감정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내세운다.

'항거'는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 서대문형무소 8호실에 투옥된 유관순과



'항거:유관순 이야기'

여성운동가들이 함께 보낸 1년의 이야기를 흑백화면에 담았다. 2016년 운동주의 이야기를 흑백으로 그려내 호평 받은 '동주'와 여러 모로 비교되면서도 '동주'를 잇는 작품'이란 긍정적인 평가가 따른다. 유관순 역의 고아성은 "오직 기록과 증언을 토대로 고증한 이야기"라며 "촬영 전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감독에게 제안했지만 검증되지 않은 일화라는 이



'자전차왕 엄복동'

유료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3.1절 100주년이라는 시기적 프리미엄도 흥행에 작용할 전망이다. '항거' 마케팅을 맡은 이노기획 관계자는 24일 "관련단체는 물론 자발적으로 형성된 관객들의 단체관람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비와 함께 또 다른 주연 이범수가 제작자로도 나선 '자전차왕 엄복동'은

'항일영화' 27일 동시개봉 제작비 10배차...평가 주목

1913년 전조선자전차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엄복동의 이야기다. 1910년대 경성에서 벌어진 대규모 자전차대회, 이와 맞물린 애국단의 총력전 등 활약을 담는다.

10억 원에 불과한 순제작비로 경쟁력을 극대화한 '항거'에 비해 무려 10배 더 많은 100억 원의 제작비를 쏟은 영화는 시대와 인물에 대한 고증과 이해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도식적 전개와 평면적인 등장인물의 반복적 등장 등으로 설득력이 약하다는 평이다.

엄복동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훗날 자전거 10대를 훔친 혐의로 간히고, 한국전쟁 직전에도 비슷한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감독은 이에 "하나의 사실로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